

억겁의 세월 남구를 지켜본 가깝지만 먼 섬 안녕! 오륙도

Cover Story 부산의 랜드마크이자 남구의 상징인 오륙도. 물에서 손에 잡힐 듯 뻗어 있지만 심리적 거리는 독도만큼 멀게 느껴진다. 오륙도에 들어가 본 경험에 있는 남구 주민을 찾기란 극히 어렵다. 낚시꾼이 아니라면 오륙도에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지조차 모르는 이들이 대다수이다.

오륙도에 들어가려면 오륙도선착장에서 여객선 성조호를 타야 한다. 스카이워크를 찾았다가 호기심에 성조호를 타고 오륙도 등대섬에 입도하는 외지 관광객들이 더러 있었지만, 몇 해 전 여객선 운임이 성인 1인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오른데다 오륙도등대가 무인화되면서 발길이 뚝 끊겼다. 현재 오륙도는 ‘절해고도’와 다를 없는 처지가 됐다.

등대섬의 원래 이름은 오륙도의 다른 섬들에 비해 땅이 평평해서 ‘발섬’으로 불렸다. 발섬에 등대가 세워진 것은 80년 전이다. 1876년 부산항이 개항하면서 각종 선박들이 오륙도 앞을 지나다니기 시작했고 항로의 길잡이 역할을 할 등대의 필요성이 부각됐다. 특히 오륙도 일원은 짙은 안개로 선박사고가 잦았는데, 1935년 부산과 시모노세키를 오가는 6,500톤급의 관부연락선이 취항하면서 기존 등대로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게 되었고 이에 일제가 당시 2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발섬에 등대를 신설해 1937년 11월 1일 첫 불빛을 밝혔다. 높이가 6.2m 철근 콘크리트로 지어진 당시 등대는 외벽 두께가 50cm로 다른 등대보다 30cm 이상 두껍게 설계되어 태풍이나 해일 때 바닷물이 건물 안으로 스며들지 못했다. 바깥벽에는 둥그런 창문이 15개가 설치되어 그 모습이 잠수함을 닮았다고 해서 ‘잠수함 등대’로 불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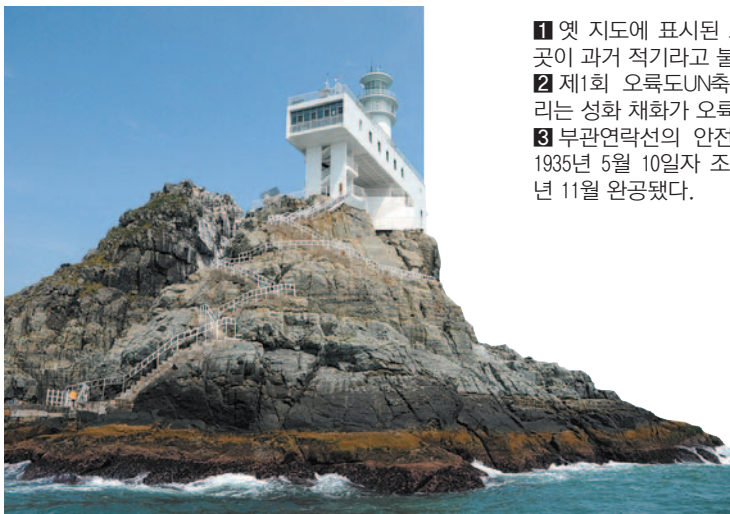
해방 전까지는 여름철 안개가 심할 때만 등대지기가 근무했는데 해방 이후부터는 2명의 등대지기가 1주일 교대로 근무했다고 한다. 1959년 5월 30일자 부산일보 기사에 따르면 ‘등대에는 우물도 나무도 없는 바위뿐이라 살림을 살 수가 없으니 등대수는 자기 집에서 1주일간 먹은 식량을 갖고 가서 자기들이 밥을 지어 먹는다. 반찬이라곤 된장, 고추장이고 간혹 낚은 생선을 구워 먹기도 하는데 물이 귀해서 갖고 간 물을 아끼고자 빗물을 받아 먹기도 한다’고 당시 열악하고 고달팠던 등대지기의 생활을 설명하고 있다.

등대가 낡고 입출항 선박의 규모가 커지면서 잠수함 등대를 허물고 시민공모를 통해 1998년 12월 높이가 27.5m 지금의 등대가 세워졌다. 이때 ‘잠수함 등대’를 없애지 않고 오륙도해맞이공원 일원에 옮겨 놓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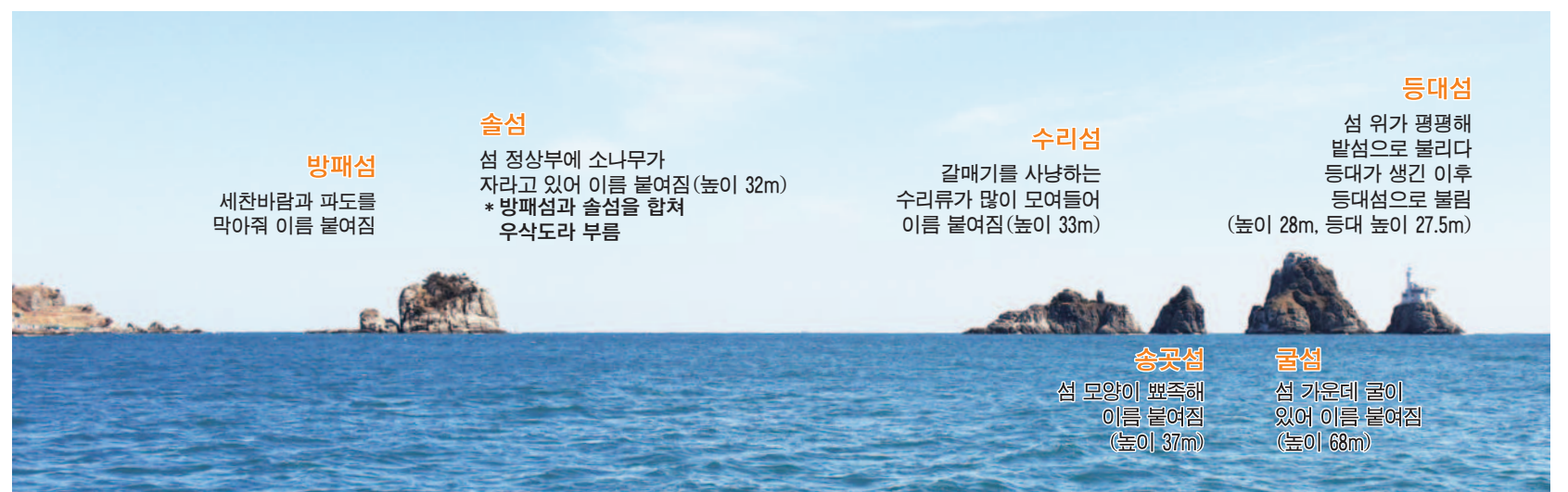
성조호를 타고 5분 만에 등대섬 선착장에 닿는다. 계단을 조금 오르면 철망이 쳐진 오륙도등대가 나온다. 정부의 유인등대 무인화 정책으로 2019년 1월부터 등대지기가 모두 빠져나가 외부인들의 출입을 막기 위해 폐쇄됐다. 오륙도등대가 무인화하면서 부산 해양청은 등대 건물을 카페나 해상호텔, 식당 등 관광자원화를 구상했지만 접근성 등의 문제로 흐지부지된 상태다. 오래 방치된 탓에 등대 외관은 페인트는 벗겨지고 난간은 녹슬고 휘어져 있다. 황량하고 쓸쓸하다.

심연처럼 깊어진 가을, 외로운 섬에 반가운 손님들이 하나둘 보인다. 선발대로 추정되는 가마우지들이 심심찮게 목격된다. 등대섬과 마주보는 굴섬은 겨울철 가마우지들의 서식처. 조만간 시베리아를 떠나온 가마우지들이 오륙도 일원을 가득 메울 것이다. 사람이 없다 해서 오륙도가 꼭 외로운 것은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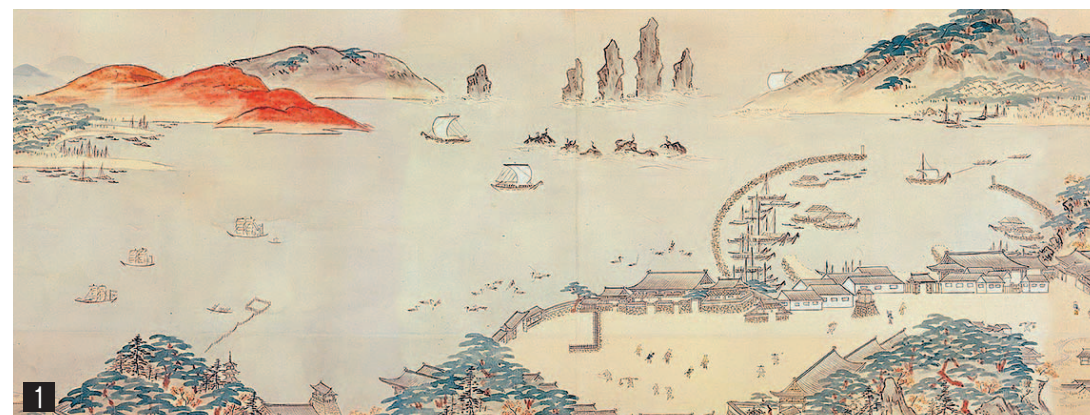
홍보담당관 ☎607-4077



드론으로 내려다 본 오륙도 모습. 오른쪽부터 등대섬, 굴섬, 송곳섬, 수리섬이 열도(列島)처럼 줄지어 있다. 12만 년 전 오륙도는 육지에 붙은 작은 반도였는데 오랜 침식작용으로 육지에서 분리돼 지금의 섬이 되었다고 한다.



초기의 오륙도등대. 높이가 6.2m로 멀리서 보면 잠수함을 닮았다고 해서 잠수함등대로 불렸다. 맨 오른쪽 사진은 6·25전쟁이던 1952년 짙은 안개로 프랑스 화물선이 오륙도에 좌초된 모습.



1 옛 지도에 표시된 오륙도와 남구의 모습. 붉게 칠해진 곳이 과거 적기라고 불린 감만동.
2 제1회 오륙도UN축제(1997년 10월 9~13일)의 출발을 알리는 성화 채화가 오륙도에서 열렸다.
3 부관연락선의 안전을 위해 오륙도등대가 설치된다는 1935년 5월 10일자 조선일보 기사. 등대는 2년 뒤인 1937년 11월 완공됐다.

